

2022. 12.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 부터 101 제자훈련 55기, 201 제자훈련 3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일이신 우리 예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실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teaching), 복음전파(preaching), 고침(healing)입니다(마 4:23; 9:35). 목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잠 29:18). 예수님의 가르침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을 변화라고도 부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요, 잃어버린 영적 은혜의 회복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여우가 토끼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나 토끼가 살아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우는 한 기의 식사로 토끼를 보았지만 토끼는 생명을 걸고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기 식사로 제자훈련을 대하기보다 생명을 걸고 훈련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입니다 (시 126:6).

사실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정해도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훈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새 봄과 함께 힘차게 훈련에 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 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사순절III 주일 예배

제 30권 12호 주후 2022년 3월 20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305장, 488장		
기도	김선태집사	정수영장로	김용호장로
성경봉독	딤후 3:16-17		엡2:8-10
찬양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세미한 소리: 성경		완전한 복음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3월 23일 오후 8:30

- 기도: 박희순권사
- 말씀: 이동홍선교사(니카라과)
- 다음주 기도: 김영모권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2-4/16)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태근B집사
- 2부: 김근태장로
- 3부: 김두성장로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3부 예배: 설교/정성욱목사(덴버신학교 교수)
 - 수요일예배: 설교/이동홍선교사(니카라과)
 -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립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3월 목장 예배 안내: 3월 25일 금 오후 8:30 각 목장별로
3월 23일 수요일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 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 제50기 새가족 만남 수료식: 3부 예배시
- 제66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김용호장로(회계)
- 6선교회 친교: 3부 예배 후 친교실
- 다니엘 잠언 프로젝트: 3부 예배시 잠언 암송 김민영(7학년)
- 세례/입교 신청: 부활절에 세례/입교(신청과 문의: 부목사실)
- 중고등부 세례/입교 공부: 오늘부터 4주, 주일오후 12:30-1:15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김준택장로(생일), 박경구장로(결혼기념), 최환희성도(동생추모)
 - 사랑의 식탁: 김준택장로(생일), 최환희성도(동생추모)

교우등정

- 축 특손: 류석환집사 & 박용자권사(3/8)
- 입원: 장봉용집사(The Grand Rehabilitation & Nursing at Great Neck)

행사예고

- 3/2 - 4/16: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및 릴레이 금식기도
- 3/27: 사순절Ⅳ
- 4/3: 사순절Ⅴ, 정기당회, 유명근전도사 목사 안수식(오후5시 본당)
- 4/6: 3여선교회 헌신예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왕상 19:9-18)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목소리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2000년에 아프리카 케냐 농아를 위한 단기선교에서 배웠습니다. 농아는 원래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잘하는 이유도 잘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노래 잘하는 아이들은 태중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등과 겨루어서 승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려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보이신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동안 닫힌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기도한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살해 계획을 듣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최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진한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병을 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40 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렵에 이르게 합니다.

굴에 머물러 있는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진 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운데 계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1. 엘리야 선지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귀가 문제였습니다. 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버렸습니다.
2. 세미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만 들립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 갑니다. 더 속삭입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때 아버지는 자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큰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은 일을 하기 보다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 귀로 들어야 목소리로 재현합니다(렘 29:11-13).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결론]

1940년 Wheaton College의 Edwin Orr 박사님의 영국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이야기. (웨슬리 생가) 웨슬리가 기도한 자리에 무릎을 꿇은 Billy Graham의 기도 - “오 주님,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오 주님, 한 번 더” (구원, 부흥, 치유, 회복).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